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소식지



APR-JUN 2018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 V. Newsletter**

www.vekn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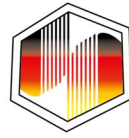


EKC 2018 참가등록 안내

EKC 2018 등록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관련소식: 10면 참조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존경하는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원님,

2018년 5월 6일은 재독과협이 창립 45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1972년 5월 1일 세 분의 한인과학자선배님께서 재독한국인과학자회(가칭) 설립 발기인 모임을 하고, 준비 활동을 시작하여, 당해 6월 10일 뮌헨주재 한국영사관에서 과학기술처 장관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소 소장을 면담하고 협회 설립준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다섯 차례의 설립준비위원회 모임을 갖는 등 준비 활동을 하여, 1973년 5월 5-6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Kronberg에서 38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하고, 6일에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께서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습니다. 45년이 지난 2018년 5월 4 - 6일에 Darmstadt에서 189명의 회원과 가족이 모여 춘계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45년 전에 창립을 준비하였던 김영상 자문위원님께서 행사에 참석한 가장 젊은 회원과 함께 기념 케이크를 자른 것은 그간의 전통과 역사를 잇고 미래로 향하는 재독과협의 소중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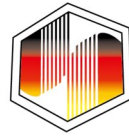
지난 6월 26일 서울의 과총회관에서 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공동협의회에서 한국과총회장과 전세계 18개국 과협회장이 모여 전세계 한인과학기술자교류를 활성화 하고, 과협 현안 및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차세대 육성은 중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한인과학기술자가 현지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성공하게 도움을 주고 동시에 과협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8개 모든 과협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숙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과협 중 이민 역사가 길어 현재 5세대까지 이어진 미국의 경우 재미과협(1971년 창립)은 1.5세대가 현임회장이 되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민 2-3세대까지 이민의 역사가 짧은 독일이지만 1973년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창립된 재독과협의 경우에도 1.5 내지 2세대 과학기술자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것은 다가오는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때 맞추어 6월 26-30일에 서울에서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GF)이 열려 전세계 차세대 대학생이 교류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들은 차세대 과학기술리더포럼(YPF)을 가졌습니다. 재독과협에서 각각 2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재독과협에서도 차세대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독일의 유학, 이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45번째 생일을 보내고, 50 주년을 준비하며 발전하는 재독과협에 유학생, 이민배경의 차세대가 더욱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재독과협 회장 박원선

지역회 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1지역 (Berlin)

6월 8일 (토) 18시에 Berlin 공대 본관에서 1지역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문혁 회원님의 레이저에 대한 강의, 김광염 회원님의 X-Ray CT 이미징에 대한 강의, 김종규 회원님의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대한 강의, 정상엽 회원님의 건설재료 분석에 대한 강의, 이광준 회원님의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강의 등이 있었습니다.



3지역 (Hannover, Braunschweig, Clausth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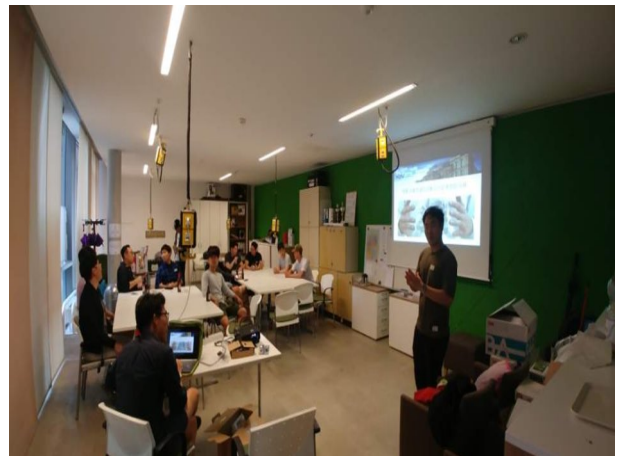
지난 4월과 6월 Braunschweig/Hannover 학생회의 개강파티에 재독과협 회원분들이 참석 하였고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2분기를 맞아서 친목을 다질겸 6월 30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5지역 (Aachen, Köln, Bonn)

5월 18 일 재독과협 5지역에서는 아헨공대 정보과 분과모임/자연대 분과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업에 대한 정보교환, Informatik 분과모임/자연대 분과모임 유지 방법 및 방향 설정에 대한 투표, Informatik/자연대 대표 선거, 친목도모등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6월 8일 아헨공대 기계과 분과모임을 정보교환, 논문 발표, 친목도모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6월 18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취업관련 및 진로상담에 관련하여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월 30일 재독과협 4, 5 지역 (NRW주) 회원들과 함께 학술회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6명의 회원들의 발표와 함께 열린 토론 및 유익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식사 및 네트워킹 시간에는 함께 친목을 다지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7지역 (Stuttgart)



6월 23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새로오신 과학자 분들의 소개 및 학술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술 교류는 김의열 평의원님의 재독과협의 운영 및 소개로 시작하였고, 연구소에서 학위과정 및 연구를 수행중이신 회원들의 연구내용 소개와 함께 7지역 과학기술자분들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술교류 행사가 끝난 뒤 우수발표자 시상을 하였고 동반 가족분들까지 함께 한 그릴파티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월드컵 축구 경기 시청도 함께하며 즐거운 토요일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11일, 7지역에서 또 하나의 행사 - 자동차분야 종사자 모임이 Stuttgart 시내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지역 평의원의 감사 인사와 모임의 취지 및 방향에 관한 간단한 발표 후 식사 및 네트워킹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분야 종사자 이외에도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가까운 8지역에서도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8지역 (München, Augsburg)

4월 7일, 뮌헨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에서 신규회원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신입 평의원의 첫인사와 함께 회원들(19명)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 후, 8지역의 2018년 연간 행사를 공지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회원님들이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참가해주신 회원 및 잠정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유익한 학술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 많은 분들께서 신규 가입을 해주신 만큼 더 활발해질 8지역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6월 25일, <박사후연구원 커리어 및 네트워킹 지원 사업> 의 8지역 모임이 열렸습니다. 뮌헨 지역의 현역 포닥, 학계/산업계 정규직이 되신 전직 포닥, 미래의 포닥, 그리고 그 동반 가족까지 모인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친목 도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10지역 (Freiburg, Karlsruhe)

6월 신입회원 환영회를 위해 오랜만에 Freiburg과 Karlsruhe의 회원 분들이 Freiburg의 한 식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을 종합해 총15명이 참여해주셨고 함께 식사를 하며 신입 회원 분들께 재독과협에 대한 소개와 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Freiburg과 Karlsruhe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좋을지 회원 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Karlsruhe에서 새로운 부평의원 백형철님이 선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해지는 10지역을 기대해 봅니다.



11지역 (Saarbrücken, Kaiserslautern)

4월 13 일, 11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에 앞서, 11지역 재독과협 11지역의 신입 회원 김수아님(인텔)의 소개로 학술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Saarbrücken 한인 협회장이신 변재선 회장님의 한인회 소개 및 향후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11지역과 한인회의 공동 발전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지역 회원들의 현재 연구분야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학술 교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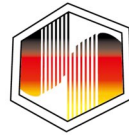


12지역 (Dresden)

5월 12 일, 12지역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재독과협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라이프치히에서 재독과협 소개와 학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의원 포함 총 20명의 참가자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앞으로 어떻게 더 활발한 지역회모임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월 26일 운동회 및 그릴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학술회 모임에서 논의한 첫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5명이 Chemnitz, Leipzig 그리고 Dresden에서 모였습니다. 닭다리싸움, 미션계주달리기, 몸으로 말해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운동회가 끝난 뒤엔 모두 함께 그릴파티를 하였습니다.



7지역 (Stuttgart)

박우석 회원님(항공우주공학 석사과정, Universität Stuttgart)께서 2분기 부터 7지역 부평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지수 회원님(박사후 과정, 항공우주공학전공, 국방과학연구소)께서 독일항공우주연구소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생활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김대호 회원님 (기계공학 학사, Hochschule Esslingen) 께서 졸업후 Bertrand Technikum GmbH에 취직하셨습니다. 전환호 회원님(자동차 공학 석사, Hochschule Esslingen)께서 석사과정 졸업 후 T&S Engineering GmbH 에 취직하셨습니다.

8지역 (München, Augsburg)

지난 2분기동안, 김종호 회원님 (물리학 전공, 석사과정, TU München), 이수빈 회원님 (NEOFECT Germany GmbH), 노진용 회원님 (물리학 전공, 학사과정,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이은경 회원님 (산업디자인, Dialogform GmbH), 전성철 회원님 (Sales, Lite-On), 나세윤 회원님 (중대형전지/기계공학, 삼성 SDI), 최모세 회원님 (전자공학, Menlo Systems GmbH), 박종순 회원님 (Web development, DialogData GmbH), 이정훈 회원님 (Structural biology, Max Planck Institute of Biochemistry), 이세원 회원님 (Technical Sales and Support, EL MATERIALS Europe GmbH), 박지태 회원님 (물리학, Forschungsreaktor München II, TU München), 정희석 회원님 (물리학 전공, 박사후 과정, TU München), 한희정 회원님 (원자력공학 전공) 께서 재독과협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10지역 (Freiburg, Karlsru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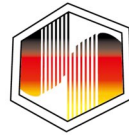
10지역 2분기부터 부평의원으로 백형철(Mechanical Engineering 박사과정,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님이 선출 되었습니다. 또한 조엘리야(Uhrmacher, Goldschmiedeschule mit Uhrmacherschule Pforzheim), 이재원 (물리학 석사과정, University of Freiburg), 유인영(Umweltnaturwissenschaft 학사과정, University of Freiburg) 그리고 최한솔(계산뇌과학 박사 후 과정, Bernstein center Freiburg)님이 새로 가입하셨습니다.

12지역 (Dresden)

12지역 복진형(Wirtschaftsinformatik, Diplom 과정, HTW Dresden)회원님께서 새로운 부평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신규 회원님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독일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경험과 시간을 통해 각자 다른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독과협은 회원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재독과협 2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5월 4-6일 (금-일)

장소: Darmstadt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9개의 학술 프로그램 (9개 특별세션) 으로 구성된 2018년 재독과협 춘계학술대회가 5월 4-6일 2박 3일간 Commundo Tagungshotel Darmstadt 에서 열렸습니다. 총 189명의 회원(가족 포함)이 참석하였고 52개의 초록이 발표된 매우 성대하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본인 업무 이외의 시간을 쪼개어 준비한 자리에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셨고 연구 발표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분과 코디네이터 이현정박사님의 전반적인 학술 프로그램 조직아래 윤성호 기계분과장님, 윤송하 재료분과장님, 최종호 화학분과장님, 김민재 편집간사님, 최은진 재료부분과장님, 허준화 평의원님, 하광태 박사님, 손성민 체어님, 류창선 박사님께서 9개의 특별세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재독과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은 바로 회원님들의 학술연구 및 교류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독과협의 발전을 위해 분과장님들과 세션을 제안해주신 체어님들께서도 함께 주축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춘계 학술대회의 모든 사진 촬영을 담당해주신 김의열 7지역 평의원님과 박우석 7지역 부평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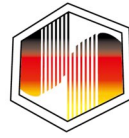
춘계학술대회 행사의 조직 및 후원을 담당하신 박원선 회장님(왼쪽 위)과 이보현 부회장님(오른쪽 위), 전반적인 행사 기획, 운영, 진행을 담당하신 안현섭 간사장님(왼쪽 아래), 그리고 전반적인 학술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담당해주신 이현정 분과 코디네이터님(오른쪽 아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사의 마지막날은 재독과협이 창립 4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45년이 지난 2018년 5월 6일에 Darmstadt에서 많은 재독과협 회원과 가족이 모였고, 45년 전에 창립을 준비하였던 김영상 자문위원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가장 젊은 회원과 함께 기념 케이크를 자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역사와 미래의 번영을 기대하는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활발해지고 발전할 재독과협을 기대할 수있었습니다.



재독과협 2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행사의 전반적인 도움과 지원을 맡은 운영위원님들과 재독과협 회장단의 사진입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안현섭 간사장님, 박다일라 회원님, 김미진 회칙개정위원님, 고영종 총무간사님, 이보현 부회장님, 최은진 재료 부분과장님, 김민재 편집간사님, 정현덕 5지역 부평의원님, 편성열 정보간사님, 김민지 회원님, 허준화 6지역 평의원님, 박원선 회장님, 권희희 회원님, 김희라 회원님, 한지행 회원님, 이현정 분과 코디네이터님, 나윤경 재무간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모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주고 계신 박원선 회장님.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소중한 발표 시간과 분과모임을 간략한 글로 남겨 향후 학술대회 및 분과모임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9개 세션을 담당한 각 세션장들의 세션후기 (**춘계학술대회 후기 1**)와 회원님들의 참가 후기 (**춘계학술대회 후기 2**)는 소식지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한민족청년과학도/차세대과학기술리더 포럼

일시: 2018년 6월 26-30일 (화-토)

장소: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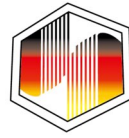
참가대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1.5 세대 이후 해외동포 차세대 과학기술인

6월 26일 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에 재독과협에서 이기석 학생(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과 강남구 학생(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이 참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열린 차세대과학기술리더포럼(Young Profession Forum)에는 우리과협의 차예슬 박사(Freie Universität Berlin)와 이주한 박사 (INM - Leibniz Institute for New Materials)가 참가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참석한 박원선 회장과 YGF, YPF 참가자의 기념 셀피입니다.

재독과협 2분기 활동소식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환경/에너지 분과 Merck 견학

일시: 2018년 4월 12일 (목)

장소: Merck, Frankfurter Straße 250, Darmstadt
참석자: 강성아 환경/에너지 부분과장, 최은진 재료 부분과장, 김영상 자문위원님, 지석구(KIC) 소장님, 김재우(KIC), 정미라, 안소현, 정겨운, 이승훈, 정성호, 이하얀, 문소현, 김성희 회원님

지난 4월 12일, 환경/에너지 분과에서는 강성아 환경/에너지 부분과장의 인솔아래 Darmstadt 있는 Merck사를 견학을 하였습니다. Merck은 Healthcare, Life-Science, Performance Materials등에 대해서 연구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질의 생산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강성아 환경/에너지부분과장님의 견학 후기는 소식지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KC 2018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일시: 2018년 8월 20-24일 (월-금)

장소: Glasgow, UK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유럽의 과협회원, 한국 및 유럽의 과학기술자

일반등록 기한: 7월 15일까지 연장



- EKC 2018 기술사업화 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2018년도 글로벌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재영과학기술자 협회에서 8월 Glasgow에서 열리는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EKC) 행사기간 중 차세대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및 기술사업화 (Technology Transfer) 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독과협 홈페이지 및 EKC 2018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EKC 2018 사이언스 스쿨 튜터 모집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및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이나 동반성장/적정기술 관련 아프리카 현지 활동가 또는 NGO 소속 활동가/사이언스 스쿨 또는 적정기술 캠프 관련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독과협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vekni.org/index.php?mid=Announcement&document_srl=43268

- EKC 2018 투어 프로그램

아래 참조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6월 30일 마감)

<http://www.ekc2018.org/page/social/tourprogramme>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및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전문정보사업)

전 회원 대상, 독일에서 연구를 시작하거나 연구과정 중 개별 연구소 및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원고모집 사업입니다.

- 1) 학사과정: 거주지역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소개 (학교 소개/시설/입학정보/기관이 위치한 지역소개/기타)
- 2) 석사, 박사과정: 전공에 따라 과정, 학교 또는 연구소 특징과 흐름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지원방법, 학업과정의 특징, 연구소의 중점사항)
- 3) 박사과정: 연구소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연구소의 특징)

또한 박사과정 이상이나 연구소 소속 연구원 대상으로 본인 분야에 대한 개괄적 소개 또는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독일의 신기술 소개를 중점으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전문성강화를 위한 원고모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형식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자유형식이지만, 최소 A4 3장 분량으로 작성 요망, 글씨크기 12P, 글씨체 자유, 줄간격은 160%로 작성 권장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 필수입니다. 세부사항과 원고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세부사항과 원고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내 안내사항 참조. 편집 후 홈페이지 및 회지에 게재됩니다.

문의 : 편집간사 김민재 (minjae.kim@vekni.org)

박사후연구원 커리어개발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사업

본 사업은 금년 과총 특별사업 중 하나로서 현재 박사후연구원 과정에 계신 회원들 간의 보다 밀도있는 네트워킹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독일 내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향후 커리어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까지 지역회 및 권역별 모임(preliminary meeting)을 갖고 10월 이후에 전체 모임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회원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역회 단위로 홍보하고 지역모임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취합해 주실 지역회별 실행위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께서는 연락바랍니다.

문의 : 간사장 안현섭 (hyunsup.ahn@vekni.org)

회원 공지)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및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전문정보사업)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독과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2018년 현재 아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가 더욱 편리하고, 새로운 정보 가득한 홈페이지로 변화하였습니다.

www.vekni.org

회원가입 안내)

온라인을 통해 (<http://reg.vekni.org>) 신입회원 등록과 함께 기존 회원님의 정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모든 회원님께서 아래 링크에 등록하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별, 분과별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중요합니다.

문의 : 정보간사 편성열 (sungyeol.pyeon@vekni.org)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페이스북 그룹



회원간의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을 전하는 공간, 재독과협 페이스북 그룹이 개설되었습니다. 회원간 친목, 사진 게시, 질의 응답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내에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검색 또는 다음 링크 주소를 이용바랍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www.facebook.com/groups/348153868866931

문의 : 홍보간사 김청희 (cheonghee.kim@vekn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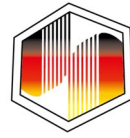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래주소로 들어오시면 재독한국과학기술자 협회 회원분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https://open.kakao.com/o/gizwXBr>

문의 : 홍보간사 김청희 (cheonghee.kim@vekni.org)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자동차분야 특별세션

7지역 손성민 자동차 분야 세션장

4년전 독일로 이직하여 다임러벤츠 중앙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독일 내 자동차분야 한인 전문가들간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아래 재독과협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독일 내 자동차산업계 한인과학기술자 간 친목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한인 전문인 분들이 이와 같은 친목 및 기술 교류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에 연계하여 금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자동차분야 특별세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독과협 회장단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고, 독일 내 자동차분야 전문가 분들 또한 적극적인 참여해주셔서 이번 세미나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세션의 좌장으로 그리고 자동차 기술에 관심이 많은 한 명의 과학기술자로서 이번 세션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사에서 발표해주신 전문가분들 모두 각자 다른 자동차 기술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셔서 다양한 자율주행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반적인 차량 디자인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대부분 현업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실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론적인 부분들이 차량개발에 접목될 수 있는지도 이해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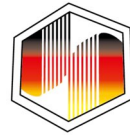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특히나 세션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현대자동차에서 컴퓨터 이용 공학 (Computer Aided Engineering)과 음향 설계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자동차의 구조 설계와 감성품질을 최적화 및 향상 시킨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주셨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화두가 되는 친환경 및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발전 현황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발표는 이번 행사에 초청 강사로 영국에서 참석해주신 Loughborough대학 김정식 박사의 "Urban Mobility? C price or H price?"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자동차가 미래기술의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복합적으로 상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전체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경쟁력 있다는 연구데이터는 매우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학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새벽 늦게까지 각자 독일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일하며 느끼는 고충을 나누고 서로 위안을 삼았던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재독과협 박원선 회장님, 안현섭 간사님 그리고 윤성호 기계분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일 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분들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갈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기계분야 특별세션

8지역 윤성호 기계분과장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는 많은 수의 기계분과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계공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적용되기에 준비를 하면서 "지능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 (좌장: 손성민)",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 (좌장: 윤성호)", "지속가능기술 (좌장: 하광태)" 로 크게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준비하였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각 분야



를 두 세션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의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수준도 매우 좋아서 어떠한 학회랑 비교해보아도 뒤지지 않는 좋은 주제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분들의 발표, 다양한 국가연구소 소속인 연구자 분들의 연구 내용, 또 학교에서 최첨단 지식을 탐구하는 대학원생분들의 발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발표되고 또 토론이 되었습니다.

기계분과 발표 중에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거미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를 실험으로 관측한 조문성 회원님의 발표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기술 관련 하여서는 영국 Loughborough 대학교의 김정식 박사님이 항공 기술 관련하여서는 프랑스 유텔셋에 계시는 최경일 박사님께서 초청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함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맥주를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자리를 잘 잡으신 (?) 선배님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님들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문가운데 연구가운데 서로를 돕고 힘주는 것이 재독과 협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학회를 보내고 또 훌륭한 많은 분들을 보아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 기계분과 분과장으로 작년 후반에 부탁을 받고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 어서 춘계학술대회가 와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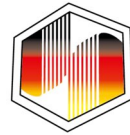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생명분야 특별세션

7지역 류창선 생명 분야 세션장

생명 분과 세션은 아침 첫 번째 세션으로 소회의실 B에서 4분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이 섞여있는 학회 특성에 맞추어서 연자들께서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흥미롭고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준비하여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커피, 흡연, 중금속 토양의 식물 정화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명 분과장의 공식으로 인해 제가 세션 체어를 맡게 되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 발표장 내 외부입력 케이블 문제로 일부 진행이 지연되어서 참석자들에게 송구하였으나 연자들께서 시간을 잘 맞추어 주셔서 발표 진행은 시간을 넘기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세션이었던 덕에 심도 있는 질문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진행된 생명 분과 모임에서는 다른 전공보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생명 분과에 대한 커리어 개발에 관한 조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분과장을 역임하셨고 부분과장으로 계셨던 노보젠에 근무하시는 9지역 윤재영 박사님께서 다시 생명 분과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4지역 이권진 회원께서 향후 생명 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생명분과는 10월에 있을 춘계학회 및 정기총회 참석을 장려하고 가능하면 전년도와 같은 분과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곧 귀국하시는 KEIT 이강우 박사님께서 분과 모임에서도 분과 내 교류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생명 분과 회원 분들께서는 이강우 소장님의 그간의 도움에 깊이 감사 드렸습니다.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미래재료분야 특별세션

7지역 최은진 재료 부분과장

햇살이 따스하게 드는 5월 첫 주에 처음으로 재독과협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처음보는 싱그러운 초록집과 봄을 알리는 현수막은 순풍을 기대하게 했다. 이제 갓 박사과정학생이 된 나로서는 학술대회이기에 연구에 대한 깊이과 재미를 고려하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 세션 당 3 - 5 개의 발표로 구성된 다양한 주제의 세션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내가 있었던 곳은 미래재료에 대한 세션이었고, 미래 에너지를 고려한 태양광, 광촉매, 그에 관련된 기기 개발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그 외에도 흥미로운 관점의 연구들이 있었다. 다만, 다들 시간이 부족해 보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연구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마치 1.5배속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미래재료라는 굉장히 큰 범위의 주제임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소개되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말 좋은 내용의 연구를 발표해 주셨고, 아침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다. 단지 미래재료세션만이 아니라 다른 세션에서도 뜨거운 관심의 열기가 함께 했고, 많은 이들이 세션이 끝나고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다. 새로운 시도였고, 새로운 장소에서 모험을 했고, 기대를 넘은 큰 만족을 얻었다. 거리가 멀어 정기총회에서는 뵈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 내년에도 좋은 사람들과 연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봄을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획해준 재독과협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미래의 물리학 특별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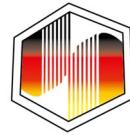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2지역 김민재 편집간사

2018년 춘계학술대회 Session 8: 미래의 물리학 세션에서는 정지현, 장지웅, 이승섭, 홍성주, 정효원, 김민재, 박원선, 하용현 그리고 김동천 회원등 총 9분께서 각자의 주제에 관해서 발표를 진행해주시고 토론에 참여 해주셨습니다. 위 세션은 미래에 물리학이 어떻게 변화할것 인지에 관한 큰주제를 놓고 방법론적인 세부분야별로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이론물리학 세션: 미래의 물리학세션은 세부주제중 가장 따분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론물리학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위 이론물리학 세션은 정지현, 장지웅, 이승섭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물리학/천문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있는 암흑물질에 관한 연구와 함께 입자물리학의 전반적인 개념과 현재 다뤄지고 있는 최신 주제를 설명해주신 정지현님께서서는 기본적인 물리개념부터 왜 미래의 물리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작은 입자들과 연결되었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표준모형 너머의 '초대칭이론'이 예상한 초대칭입자가 CERN의 LHC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기에 약간의 침체기, 혹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현재의 이론물리학계를 대변하여 여러가능성을 열어보고 두들겨 본다고 설명해주신 정지현님의 발표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최신 입자물리학에 관한 사실들도 물어볼 수 있는 사심 가득한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발표해주신 장지웅님께서서는 물리학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있는 우주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주셨습니다. 현재 전파 망원경과 최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됨에 따라서 각광받고 있는 관측 가능한 은하수들에 관해서 발표해주



신 장지웅님께서 SHINING이라고 불리우는 원적외선을 이용한 근거리의 은하수 측정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천문학 개념부터 응용될 수 있는 개념들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신 장지웅님의 발표는 모두 다 흥미롭게 경청할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난이도 덕에 질문이 들어오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론물리학세션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신 이승섭박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슈뢰딩거의 개"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미있는 발표를 시작해주신 이승섭박사님께서 고체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strongly correlated systems 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quantum many-body systems 중, dynamical mean-field theory (DMFT) 와 numerical renormalization group (NRG)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에 다시금 양자 역학 책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수준높은 강의였습니다.

실험물리학 세션: 위 세션에서는 다음으로 두 젊은 과학자의 아주 비슷하면서도 상반된 연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 실험물리학 세션은 홍성주 그리고 정효원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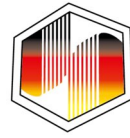
먼저 고체물리학의 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Graphene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주신 홍성주 박사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Graphene의 기본개념부터 우리가 왜 Graphene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며 또 미래의 물리학이 왜 Graphene에 관한 연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지 피력해주셨습니다. Graphene은 최근 가장 많이 연구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연구도 역시 Graphene에 매달리게 될 미래의 물리학을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해주신 정효원님께서 Graphene연구와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연구인 2차원 물질에 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지만 transition-metal dichalcogenides (TMDs) 를 사용하여 연구한다는 점이 꽤 흥미로웠고 어떠한 점이 Graphene과 비슷한지 또 어떠한 점이 Graphene과 다른지에 집중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실험물리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시고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신 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전산물리학 세션: 커피break를 가진 후 다시 진행된 미래의 물리학 세션은 전산물리학에 관한 세부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론물리학을 증명하는 실험물리학의 한계를 컴퓨터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드는 전산물리학 세션은 김민재님과 박원선 회장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김민재 님께서는 외계 생명체를 찾을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인 먼지원반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먼지로 둘러싸인 이 먼지원반은 행성보다 작은 크기인 미행성들의 충돌로 인한 결과물이기에 먼지원반에서의 충돌이 중요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충돌변수의 조절이 먼지원반의 외형관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천문학이 건계될 미래에 관해서도 예측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인기있었던 주제였던 기후 모델에 관한 발표를 박원선 회장님께서 강연해주셨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수치해법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현재 기후의 재현 뿐만 아니라 과거 기후의 복원, 미래 기후의 예측까지 응용 범위가 다양하기에 미래의 물리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인 기후모델의 발전 그리



고 확장에 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모든 발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질문시간을 가졌던 만큼 뜨거운 인기를 끈 발표였습니다.

응용물리학 세션: 다음으로 위 세가지 방법론적인 세부 물리학들을 공학과 연결시켜주는 응용물리학 세션에서는 하용현님과 김동천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MRI coils의 tuning에 관해서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신 하용현님께서서는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의 연구와 여러 다른 연구에 관해서 resonance frequencies의 설정에 관한 약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작으로 연구의 재설정과 함께 오류 파악 및 a full complex trap circuit impedance에 관한 수정을 한결과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완벽한 과학과 연구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벤저스의 아이언맨으로 관심을 끈 김동천은 Diffractive optics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Diffractive Optical Element(DOE)는 segmenting and redirecting the segments를 통해서 wavefronts를 수정할 수 있는 최신기술인데 이의 응용과 미래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디스플레이의 발전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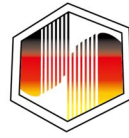
위 세션에 관한 전반적인 소감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물리분과의 절반이상이 발표신청을 해주셨고 모든 분들께서 세션에 함께 해주셨기에 4시간의 세션시간이 1시간으로 느껴질만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각각의 짧은 발표시간에 관한 아쉬움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연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전공에 관해서는 기본개념부터 설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15분은 능숙한 발표자들에게도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다음번 정기총회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더 좋은 발표로 다시 뵙길 소망합니다.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지속가능기술 특별세션

2지역 하광태 기계 부분과장

독일에 온지 어언(?) 9개월,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서 독일에서의 생활도 비슷하겠지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왔건만, 무엇하나 쉽지 않은 독일 생활... 문화에 부딪히고, 언어에 막히고, 겨울 동안의 우울한 날씨 속에 버텼던 지난 7개월을 후의 오랜만의 외유를 다름스타트는 그렇게 푸르고 환한 날씨로 나를 맞아주었다. 무엇보다 첫 날 편하게 맞이해준 운영위원회 분들과 사진사님 덕분에 기분좋은 학술대회 첫날을 시작하였다. 비록 아는 사람 하나 없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단지 그 하나로 쉽게 가까워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진 첫날이었다. 그것도 공짜 맥주 2잔과 함께. 독일 와서 가까이 하게 된 맥주, 하지만, 역시 술은 정다운 사람과 마셔야 그 맛도 더 풍부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나눈 대화로 새벽을 넘고 넘어... 잠이 부족한 첫 하루였다.

어느덧 아침.. 오랜만에 호텔주변을 걸어본다.. 독일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산책에서 찾는데, 상쾌하고 조용한 다름스타트의 느낌이 참 좋다. 새로운 분들과 아침을 함께하고 오늘 하루 학술세션을 시작해 본다. 요즘에 특히 배움이란 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새로 기술들과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을 한국어로 편안하게 듣는다는 것은 내게 더 할 나위없는 즐거움이였다.



기초화학부터, 재료, 물리, 에너지, 로봇, 인공지능, 정책 등 하나하나 처음이지만, 하나에만 꽂 막혀있던 나의 혈을 뚫어주는 침과 같았다. 복잡한 수학의 구름들을 많이 보기도 하였지만 사소한 질문에도 쉽게 설명해주는 발표자분들 덕분에 그것도 한국어로의 설명은 그 자체가 콕콕 잘 이해가 되었다. 그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할 뿐이다. 참.. 요즘엔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리라 본다. 상사 앞에서 질문하기가, 그것도 가끔 엉뚱한 질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독일와서 이것 저것 질문을 하면서 좀 더 정돈된 질문을 만들고 또 정돈된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좋다.

오랜만에 굶주렸던 지식의 갈증을 소화하기 위해 하루 동안 열심히 이것 저것 찾아 들어서인지 많이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에 더 힘을 내고, 또 더 많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었다. 둘째 날을 보내면서 느낀 건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냥 단순한 모임이었지라고 생각했던 재독 한국 과학기술자협회 학술대회의 운영과 내용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많은 여러 나라의 학술대회를 다녔지만, 단언컨데 Top 3에 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또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참여와 협력, 국내 회사에 계시는 분들의 참석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오고 싶어하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이번 3일간의 완벽한 학술대회를 지내면서, 이를 위해 애쓰신 운영위원회분들, 자원봉사자분들, 회장단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의 즐거움과 재충전된 에너지로 다음 추계학술대회까지 일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그 때 다시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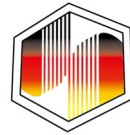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빅데이터,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 특별세션

6지역 허준화 평의원

학술대회 둘째날 오후, 총 다섯분의 알찬 발표로 구성된 "빅데이터,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 세션은 세미나룸 안을 가득 매운 청중들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워주신 청중분들을 통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발표는 권지희씨께서 증강현실이 적용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에 대해 발표를 하여주셨고, 이를 통해 기술과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사용자에게 어떻게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두번째 발표는 차수현씨께서는 자동화공정에서의 formal verification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그 중 하나의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열정적으로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세번째는 곽상훈박사님께서 power-efficient한 globally asynchronous and locally synchronous 칩 설계 방법론에 대해 열띤 발표를 주셨습니다. 네번째 발표는 권오훈씨께서 딥러닝/머신러닝 기술의 기초와 관련하여 심도있고 알찬 발표를 해주셨고, 다섯번째는 허준화씨께서 딥러닝과 기존 방법론과의 장단점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세션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발표 도중에는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를 통해 알차게 발표준비를 해오신 발표자와 발표를 경청하시는 청중들간에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발표도중 기계적인 문제 및 세션 시간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추후에 진행이 된 전기전자정보분과 모임에선 학업 및 산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몇 달 뒤 Essen에서 만날 날을 다시 기약한채 모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



들이 관련 학술세션 및 분과모임에 활발히 참석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세션 후기 - 재료공학을 위한 분석장비 및 연구데이터 관리 워크숍 특별세션

7지역 윤송학 재료분과장

이 세션에서는 손광호, 정현호, 박희용 그리고 윤송학 회원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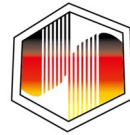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손광호 회원은 How to study the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라는 제목으로, 자성의 기본원리에 대해 학부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함께, 자성체의 광범위한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기적 성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분석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정현호 회원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두고, 깜짝놀랄만한 그리고 흥미있는 data manipulation and artefacts 의 일화들을 발표하였습니다. DNA의 이중 나선구조의 키랄성(Chirality)을 잘못 그린 일화를 시작으로, 데이터 조작의 일화들, Superchiral fields 와 Chiral plasmonics 에서의 artefacts 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 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Science relies on the accumulated knowledge of the scientific community to move forward. - Sir Isaac Newton -

박희용 회원은 Magnetic resonance techniques in material science 제목으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Magnetic resonance (MR) 분석법이 특허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연구 결과를 제공했는지 흥미있고, 적극적인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DNP SENS (Dynamic Nuclear Polarization Surface Enhanced NMR Spectroscopy)를 이용해서 표면에서의 signal을 향상시켜서, 기존에는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던 NMR 을 표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윤송학 회원은 재료공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는 XRD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XRD의 발견, 특성, 그리고 중요한 과학적 족적을 남긴 연구자들에 대한 일화를 시작으로 XRD patterns을 끝까지 분석하는 방법인 Rietveld 분석법에 대해 이야기함으로 얻을 수 있는 XR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 정보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시간 15분이 너무 짧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춘계학술대회에는 발표 시간을 더 길게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세션 참석 후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018춘계학술대회를 마치고

2지역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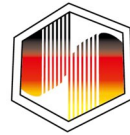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추운 계절 다 보내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 좀더 활기 있어 질 무렵 2018 춘계세미나가 Darmstadt에서 열려 더할 나위 없이 생기있는 시간을 보내다 온 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춘계세미나를 가기 전 즈음에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짧았음에도) 길고 바빴던 시간을 막 넘어서 후 엮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아쉬우며 또 짧았던 것으로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대해서 알게 된것은 2013 겨울학기에 코트부스라는 도시에서 처음 학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Berlin에서 어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을 거의 구경도 못하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발견되어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중 한 분께 과협이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곧 그 해의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있다고 참석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 이사를 한 직후라 적은돈으로 한달을 버텨야 할 때였고 아르바이트를 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별반 형편이 다르지 않아 매번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2016년에 EKC가 Berlin에서 열린 덕분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였고, 그 해 가을 총회에 참여 하리라 굳게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아테나 답사 일정이라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형편상 어쩔 수 없었던 기간을 넘어서 마침내 석사 졸업 프로젝트를 끝내고서야 작년 2017 정기 총회 및 추계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학교 행사 때문에 심야 차를 탈 수 밖에 없어서 토요일 이른 새벽에 도착 해서 다른분들 보다 네트워킹 시간도 적었고 건축이라는 저의 전공 분야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틈틈히 좋은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하시고 뭔가를 만들거나 정리해 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받는 자극이 좋았습니다. 졸업프로젝트를 마치고 운 좋게 취업도 빨리 결정되었지만, 사실은 졸업할 준비가 안 되었지만 학점을 다 채웠다고 학교가 저를 쫓아 내는, 즉 졸업을 당하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재독과협 행사에서 자극을 받으면 받을 수록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더 진작 찾아가지 못했던 미련과 마음이 겹쳐, 가능한 한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함부르크로 이사간 후에도 1, 5, 12지역 연합세미나에도 참여하였고, 2지역 지역회도 열심히 참여 하고자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춘계세미나를 오래 전부터, 즉 작년 추계세미나 마지막날 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계세미나를 기다리던 와중에 우연히 도움이 필요하신 듯한 포스팅을 페이스 북에서 보게 되었고, 감사한 맘도 있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말씀 드렸던 것이 어찌다 보니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아래 행사 준비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 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수정과 고생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 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발견 되었때에도 서로가 자신이 그랬을 확률이 더 높으며, 누군가의 책임으로 미루기 보다는 빠르게 만회하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이 고무적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날을 카운트 다운 하며 애정 쏟아 기다렸던 만큼, 돌아와서도 아직 여운이 남아 그 때 꿈을 꾸나 봅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세미나가 일반 여느 학회나 세미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모국어 아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문화에서 자란,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끈끈한 정, 혹은 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형성되는 공감대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동의를

춘계학술대회 후기 (2)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에서 세미나 발표 구성 외에 여러 부분들 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마음 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소개용 포스터 전시와 같은 이벤트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범상치 않은 예시물과 함께 뿌려진 템플릿이 누군가에게는 재미있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 왔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 하기도 하고, 꼭 나를 알리지는 않더라도 서로에게 흥미나 이야기 거리를 던져주며, 농담을 나누기도 하는 등 대화의 기회를 좀 더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춘계세미나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전에는 환경분과와 함께 있었지만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은 건축분과가 다시 생겨난 후 첫 공식 행사였다는 점입니다. 산업디자인 및 건축분과라는 이름 아래 저를 포함 9명의 회원님들이 참가하셨는데, 둘째날 분과별 네트워킹시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건축 및 디자인 계열에 종사하시는 혹은 공부하시는 하셨던 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꿀질 않았고 꿀 맛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새 맥주를 받아오다 느낀 것이 다른 분과는 이미 훌쩍지고 새로 삼삼오오 담소나누는 그룹들이 생겨났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덧붙여 질 지연정 훌쩍이지 않는 것 또한 흡족하였습니다.

우연히 자동차 세션 지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운이 좋게도 자동차 디자인을 하였던 이성균님의 발표를 들으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반가움을 느끼게 되었고, 디자인 혹은 설계자로서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어휘를 알아나가고 대화법을 배워나가고 대화 도구를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것이 엔지니어나 설계자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쩌면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산업디자인 건축 분과가 재독과협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로써 왠지 항상 깎두기 같았던 제가 있어도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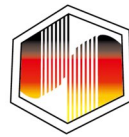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재독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가하시는 데에는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남이 해준 한국음식이 고팠을 수도 있고, 남의 나라 생활이 외로워서 한국 사람 사이의 정이 고팠을 수도 있고, 남의 나라 언어로는 채워 지지 않는 학문적 허기짐 때문에 모국어로의 토론이 고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허기진 사람들이 모여 일년에 한 두 번 부족했던 어떤 것을 채워가는 것이 좋고 이런 허기짐을 달래 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묵묵히 애 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 곧 가까운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2018 재독과협 춘계학술대회 후기

2지역 이승훈

"호텔 와이파이 ID는 DUST이고 비밀번호는 2000입니다. "재독과협에서 호텔 와이파이까지 직접 설정하셨나봐요?"

필자의 첫 번째 공식 재독과협 전체행사는 이렇게 자그마한 오해로 시작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재독과협 편집 간사님의 연구주제인 먼지원반에 맞추어 와이파이기가 설정된 줄 알았는데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우연이 인연으로 느껴 저서였을까? 그저 학회장으로 우연히 선정되었을 뿐일 호텔이 이번 학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듯 편안하게 느껴지고 적당한 크기의 개인실에 적절한 크기의 강당과 소회의실들로 150명 규모의 학회를 진행하



기에 이렇게 꼭 맞는 공간을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으며 2박3일간의 나의 첫 과협 행사는 기분 좋게 진행되었다.

"독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타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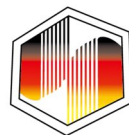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비타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연구주제가 커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 속에 함유된 비타민이 생각이 난다. 이번 학회발표를 준비하면서 너무 길어질까 봐 커피 속의 비타민에 대한 언급은 뺐는데,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가열처리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리과정을 조절하여 비타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반해, 커피의 경우, 자연스러운 열처리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 속에 있는 트라이고넨린이 분해되어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비타민 B₃)을 생성한다. 한 잔의 커피 속에는 나이아신 하루 권장량의 약 10 % 정도가 들어 있어 쌀 또는 육류를 주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핍 증상을 예방하기에 좋다. 가장 대표적인 결핍 증상으로는 피부병, 설사, 치매 등이 있지만, '불면증'도 동반한다. 비타민 B₃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숙면을 위해서 커피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아, 이수빈님이 남자분이셨군요."

이미 과협에 '김민지'님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춘계학술대회용 단체 채팅방에서 '이수빈'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매우 신기했다. 참고로 필자는 '김민지'양과 결혼하여 '이수빈'이라는 3살이 안된 딸을 가진 아빠다. 어찌 보면 다 흔한 이름이라 그저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학회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첫날 저녁에 보이는 여성분들의 명찰들을 확인하며 '이수빈'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이번에는 인연이 되지 않나 보다 생각하던 중 남자화장실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이수빈'님을 만났다. 짧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사회초년생 정도로 보였던 분이 나보다 형이었다니! 회사에서 독일로 파견을 나와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회사인가보다 생각했다. 후에 커피타임에 우연히 김민지님과 이수빈님을 동시에 만났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어쩌면 그저 서로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이에 같은 이름의 가족을 가진 필자가 있었기에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는 인연을 가진 것이 아닐까? 잠시나마 재독과협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학회에 가족 포함 총 등록된 수가 189명이라던데,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만날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인데, 과협의 존재로 인해 모이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아가서는 일부라도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도 있을 인연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별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식품? 화학? 생물? 연구영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사, 석사를 화학을 전공하고 회사에서도 디스플레이용 신소재 합성을 하던 베이스를 가지고 커피분석을 위해 독일에 왔기에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입장에서 커피, 혹은 식품의 분석과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아쉽게도 충족되지 않았다. 절반 가량의 발표가 기계 및 자동차 관련 분야였고, 소회의실 B에서 진행된 다양한 분야 (재생에너지, 딥러닝 등) 에서 각각의 과학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발표해 주신 덕에 과학적 상식의 확장이라는 목표 달성할 수 있었지만, 내가 속해있는 연구영역의 확대에는 실패한 것이다. 학회도중 KIST 유럽 연구소에서 천연물 관련 연구자를 찾는다는 전체 메시지를 받고 잠시나마 그 기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학회장 내에서는 필자 이외의 천연물관련 종사자가 없었다라는 총무간사님의 정보에 희망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분명히 독일에서 천연물 관련 연구를 하는 한국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재독과협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그러한 분들과의 유대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최소한 총무간사님을 통해 천연물 관련 연구자를 찾으신다는 분께 연락처는 드렸으니 조만간 어느 정도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Strength 카드가 나왔으니 일단 Accept일 것 같긴 한데요."

PPT를 통한 자기소개에 #타로보러오세요 라는 소개를 넣고 타로카드를 가지고 학회에 갔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화합물은 서로 비슷한 물질끼리 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카드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타로의 의미이다. 이를 떠나서라도 셔플당 1 ~ 5분 정도가 걸리는 타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를 알 수 있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해 자주 대동하는 편이다. 물론 필자는 연애운이 전문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의 점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었다. 과학과 기술에 종사하는 모임답게 상당수의 질문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내용이나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내용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 이번에 쓴 논문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Strength 카드가 나왔다. 긍정적인 의미가 큰 카드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유내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메이저 카드이다. 논문의 투고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긍정적이라면 Accept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외유내강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여 '약간의 수정이 요구되는 조건에서의 승인'이지만 그 약간의 수정이 사실상 큰 수고를 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풀이를 했었다. 논문투고의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을 준다고 했으니 타로의 신뢰도가 얼마나 될지는 곧 알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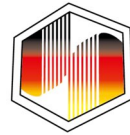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년 여기 못 와, 신입 때 인사 잘 안 했잖아."

한국에서는 독서를 장려하는 국가정책으로 '독서통신교육'이라는 제도가 있다.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목록의 도서 중 매달 1 ~ 3권의 책을 신청하고 월말에 책 내용에 관계된 간단한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면 도서비와 교육의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물론 회사 내 교육과 관련된 도서 위주로 선정되어 대부분이 자기계발서라는 한계는 있지만, 한국에서 회사에 다닐 때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50여권의 책을 무료로 받고 읽은바 있다. 총 읽은 자기계발서가 약 30권 정도가 되어갈 무렵부터 대부분의 내용들이 겹치고 어느 정도 내용들이 예상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수 차례의 자기계발 특강들도 들었었기에 이제는 이러한 강연들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학회 마지막 날 이강우소장님의 발표는 기존의 상식과는 그 궤를 달리했다.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강연에서 손을 비비지 않고 아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들을 줄이야! 그것도 국가 소속 연구소장님의 강연에서 말이다. 물론 내용 중에는 회사에 다녀 본 입장에서 좀 너무 과장했다거나 전체 이야기를 위해 실제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내용도 있어 보였지만 강연의 흐름 상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였다. 다음 번 학회에도 이와 같은 신선한 특강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학회 참석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계속 신선하려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하겠지만...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발표하신 분들 중 추천해서 한 분에게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준비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편집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평가에 의한 우수 발표상이 아니라 경품이라는 말에 '나도?'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발표자가 얼마나 있는지 초록집을 다시 한 번 펼쳐보았다. 초록집의 첫 번째에 있는 발표자 분은 두 번의 발표를 준비한 것 같다. '두 개의 발표를 준비한 사람은 추천권이 두 개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테니 그 정도의 혜택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경품 추천에서 내가 보았던 그 이름이 붙었다. 역시 재독과협답게 확률에 아주 충실한 결과를 낸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음 학회 때 두 번의 발표를 준비할 것 같지는 않다.

너무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학회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구 분야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첫 번째 재독과협학회 참가였다. 특히, 영어로 발표를 준비하고 한글로 발표해 보는 경험도 특별했고, 현재 학교에서 함께 커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학부학생의 연구지도 및 발표지도 등도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현재 커피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3가지 새로운 테마의 연구들을 가지고 다가올 EKC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는 학부학생 2명과 함께 발표할 것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때 조금 더 나은 발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예고편을 살짝 말씀 드리자면,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스페셜 르와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 고 있고, 커피로 인한 치아 변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으며, 왜 같은 물과 같은 커피를 사용하는데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 본 것과 같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EKC에서도 만났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과협의 다음 학술대회 도 참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정도 인원 규모의 행사를 자원봉사로 진행하면서 운영위원간의 불화 없이 진행 이 가능하다는 점이 신기할 정도로 대단했다.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학회 발표자 이상의 보상은 주어졌으면 한다. 사실 발표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정책에 기쁘기도 했지만, 발표를 준 비하느라 들어간 수고의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셨을 회장님 이하 모든 운영위원들에게는 그러한 수준의 보상마저도 없다는 점이 의아하기도 했다. 다시 한번 훌륭하게 학회를 마무리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2018년 재독과협 춘계학술대회 후기를 마무리할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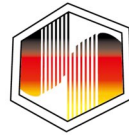
더 과학과학, 공학공학해졌다!

10지역 김도영

물리와 재료 세션의 청자가 되었는데 학생 분들의 세세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전업 프로 연구자님들의 큰 줄 기에 대한 발표는 (듣다가 목소리만 듣기도 하고 그림만 보기도 했음에도) 나의 주말 친구 한국 드라마보다 보람찼 다. 그 중 하나는 분명히 기후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그 기후의 추이를 이해하는 것은 세계 대전과도 같은 인류의 역사와 이어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말했는데, 사실 살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잘 알아야 하는 게 아 니야,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 거라 했다. 이로 따지면 나는 적어도 그래핀, 페로브스 카이트, 먼지원반, 기후모델과 LHC 입자가속기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된 셈이다.

총회의 꽃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킹이라 쓰고 술자리라 읽는 자리에서 오고 갔던 수많은 대화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 들은 아래와 같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그럼 언니들은 물리 말고 좋아하는 거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어감도 플로우도 참 예뻐서 다음에 나도 꼭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질문에는 많지! 너무 많아! 하고 흥분한 나머지 책상을 탁 치고 말았다. 프랑스에서 오신 박사님은 전산이 학문이 되기보다는 수학, 도구, 언어에 비슷하다 하셨는데 나는 되도 않는 헛소리로 어깃장을 놓으려 했다. 사실 이것은 전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슬퍼할 거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견은 옆자리에 앉은 한 전산학도의 부연설명과 함께, 그런데 머신러닝은 학문이 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박사님의 감탄으로 마무리되었다.

간사장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만큼 이곳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 겠네요 라고 언젠가 언급하셨듯 적어도 나에게는 올 때 마음이 얻은 것으로 인해 갈 때 마음과 달라지는 자리가 되었 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의 그 자리를 위해 체력과 마음과 시간을 썼을 운영 위원 분들께 감사 드린다.



강성아 환경/에너지 부분과장

Merck사에 견학을 가는 당일은 날씨가 매우 좋아서 걷기에도 좋았습니다. 도착해서 관광객 카드를 받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가이드였던 Frau Ulrike Strobl을 볼 수 있었습니다. Strobl씨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준비하는 등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Merck사와 공장에 대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많은 곳을 볼 수 있을 정도로 Merck사는 Darmstadt의 넓은 부지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었던 탓에 많은 곳을 찍을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Innovation center 였는데 회사측에서도 많은 공을 들여 생산하고 있는 OLED를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Different point of view”의 동기 및 목적을 가지고 발전하는 Merck사의 노력을 볼 수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회원들의 취업욕구를 돋우는 건물들이었습니다.

Darmstadt 시내의 조그마한 약국에서 시작된 Merck사는 이제 제약회사를 넘어 OLED, functional polymer 등 고난이도의 화학반응들을 이용한 높은 질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 유기 금속 촉매에 관한 공부를 했었는데, 이들은 반응 조건도 까다롭고 폭발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Merck사에서는 이런 위험한 반응을 엄청난 규모로 합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소개해 주면서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다는 Strobl씨의 말에 놀라움 따름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장 안에 소방서가 있어서, 공장 또는 회사의 어느 곳이든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안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Strobl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큰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불은 1999 년도가 마지막 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에 잘 갖춰져 있는 회사이구나 라고 느꼈던 Merck 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에는 처음 약재상을 할 당시 쓰였던 책상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들 그 당시 사용하던 물품 등을 잘 보관해서 전시한 것을 보니 올해 350주년을 맞은 이 회사가 괜히 오래된 회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견학날에 관광객팀이 4팀이나 있었기 때문에, Merck사의 전체적인 역사 및 회사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Merck사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방에는, Merck사의 실질적인 창립자(Emmanuel Merck가 실제적인 창립자인 이유는 그가 처음으로 일람표를 작성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인 Emmanuel Merck을 포함한 총 가계도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Merck사의 지분의 70% 는 Merck가족에 의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소유 되었다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계도 뿐만 아니라 현재 Merck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OLED를 이용한 태양전지, 우리 생활 다방면에 걸쳐 볼 수 있는 화학제품들 그리고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한 면역체계와 관련된 각종 약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불임에 관련된 약들 덕에, 많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전시된 것을 보면서 Merck사와 현대과학의 사회 공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Innovation center로 돌아와서, Merck사에서 준비해준 커피와 차와 케이크를 먹으며 견학에 대한 소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 다양한 분야, 발전되어 있는 시스템에 감탄 하면서 견학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느껴졌습니다. 350주년을 맞이한 Merck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고, 이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뜻 깊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유서깊은 회사를 견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독과협과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신 김주표 환경/에너지 분과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참여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평의원회 현황 (2018년 6월 30일 현황)

평의원회는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관으로 회장단, 지역회 평의원, 감사, 전문분과장, 자문위원 3명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2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금관리, 회칙개정, 회관관리, 차세대)으로 구성됩니다.

[정보사용제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독과협)는 회원들의 정보를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8일부터 일괄 적용된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회원을 정보주체로 인식, 신설/강화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정례화 한 바 있습니다.

<http://www.vekni.org/index.php?mid=Private>

또한 본 페이지에 정리된 평의원의 개인정보는 재독과협의 설립목적과 활동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이외의 목적으로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협회 대표메일 info@vekni.org 로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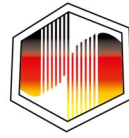
회장단

직책	성명	영문성명	소속	전공
회장	박원선	Dr. Wonsun Park	GEOMAR Helmholtz-Zentrum für Ozeanforschung Kiel	물리해양
부회장	이보현	Dr. Bohyun Lee	Maiwald Patentanwalts GmbH	화학공학
간사장	안현섭	Hyunsup Ahn	HERE Technologies	정보
총무간사	고영종	Youngjong Ko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전기전자
재무간사	나윤경	Yungyeong Na		식물자원
편집간사	김민재	Minjae Kim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천체물리
정보간사	편성열	Sungyeol Pyeon	Ernst-Abbe-Hochschule Jena	재료
홍보간사	김청희	Dr. Cheonghee Kim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화학공학

지역회

지역	대표지역	직책	성명	영문성명	소속	전공
1	Berlin	평의원	윤정석	Dr. Jeoung Seok Yoon	Helmholtz Centre Potsdam Deutsches GeoForschungZentrum	환경/ 에너지
		부평의원	김종현	Jonghyeon Kim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전기/ 에너지

평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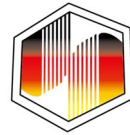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부평의원	전현정	Hyeonjeong Jeon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기계
2	Hamburg, Kiel, Bremen	평의원	최태규	Tae Kyu Choi	European X-ray Free Electron Laser GmbH	물리화학
3	Hannover, Braunschweig, Clausthal	평의원	노권호	Kwonho Noh	Gottfried Wilhelm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	기계
		부평의원	임현재	Hyunjae Lim	Technische Universität Braunschweig	기계
4	Bochum, Düsseldorf, Dortmund, Essen, Wuppertal, Duisburg	평의원	배동운	Dongwoon Bae	ENP International	기계
		부평의원	김승원	Seung Won Kim	Ruhr-Universität Bochum	화학
5	Aachen, Köln, Bonn	평의원	이광현	Gwanghyeon Lee	RWTH Aachen	기계
		부평의원	정현덕	Hyeondeok Jeong	Forschungszentrum Jülich	재료
6	Darmstadt, Frankfurt, Heidelberg, Mainz	평의원	허준화	Junhwa Hur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컴퓨터과학
7	Stuttgart	평의원	김의열	Euiyoul Kim	Universität Stuttgart	기계
		부평의원	박우석	Wooseok Park	Universität Stuttgart	항공우주
8	München, Augsburg	평의원	정효원	Hyowon Jeong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물리
9	Erlangen, Nürnberg, Regensburg, Würzburg	평의원	안효진	Dr. Hyo-jin Ahn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환경/에너지
10	Freiburg, Karlsruhe	평의원	노랑	Rang Noh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물리
		부평의원	백형철	Hyoung Chul Back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	기계

평의원 현황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11	Saarbrücken, Kaiserslautern	평의원	이주한	Dr. Juhan Lee	INM - Leibniz Institute for New Materials	에너지
12	Dresden	평의원	장세훈	Sehoon John Chang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재생에너지 시스템
		부평의원	복진형	Jinhyeong Bok	HTW Dresden	정보

전문분과

분과	직책	성명	영문성명	소속	전공
분과코디네이터		이현정	Dr. Hyunjung Lee	Stuttgart City	도시기상 및 기후
물리	분과장	김찬	Dr. Chan Kim	European XFEL	물리
화학	분과장	최종호	Dr. Jong-Hoo Choi	CAT Catalyticcenter, Aachen-RWTH Aachen	화학
생명	분과장	윤재영	Dr. Jae-Young Yun	Macrogen-Europe	생명
환경/에너지	분과장	김주표	Dr. Ju Pyo Kim	Steinmüller Babcock Environment GmbH	기계 및 에너지공학
	부분과장	강성아	Sungah Kang	Forschungszentrum Jülich GmbH	대기화학
기계	분과장	윤성호	Dr. Sungho Yoon	GE Aviation	기계
	부분과장	하광태	Dr. Kwangtae Ha	Fraunhofer IWES	풍력에너지/ 복합재
재료	분과장	윤송학	Dr. Songhak Yoon	Universität Stuttgart	재료공학
	부분과장	최은진	Eun Jin Choi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재료
전기/전자/정보	분과장	강갑석	Dr. Kab Seok Kang	Max Planck Institute for Plasma Physics	계산과학

평의원 현황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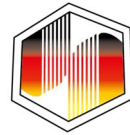
산업디자인/건축	분과장	이성균	Sungkyun Lee	현대자동차 유럽디자인센터	디자인
----------	-----	-----	--------------	---------------	-----

감사

직책	성명	영문성명	소속	전공
감사	배동운	Dongwoon Bae	ENP International	
감사	문태우	Taewoo Moon	LG Electronics	

자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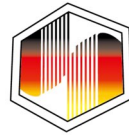
직책	성명	영문성명	소속	전공
자문위원장	김재궁	Dr. Jae-Geung Kim	University of Paderborn	에너지 공급학
자문위원	김영상	Dr. Yohngsang Kim	정년은퇴	기계
자문위원	박춘식	Dr. Choon-Sik Park		생화학
자문위원	석준원	Dr. Joon-Weon Seok	GORI Engineering	재료
자문위원	유승덕	Dr. Seung Deog Yoo	Microvortex	유체역학
자문위원	윤몽련	Dr. Mong-Jon Jun	정년은퇴	화학
자문위원	이건치	Dipl. Kun-Chi Lee		전기
자문위원	이경종	Prof. Dr. Kyong-Tschong Rie	정년은퇴	플라즈마
자문위원	이춘식	Prof. Dr. Chun-Sik Lee	정년은퇴	기계
자문위원	조유현	Dipl. Yu-Hyun Cho		재료
자문위원	조장희	Prof. Zang-Hee Cho		전자/물리/ 뇌과학
자문위원	황영수	Dr. Young-Su Hoang	정년은퇴	기계



특별위원회

위원회	직책	성명	영문성명	소속	전공
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장	김진자	Dr. Jin-Ja Kim	정년은퇴	영양생리
	기금관리위원	김영상	Dr. Yohnsang Kim	정년은퇴	기계
	기금관리위원	이건치	Dipl. Kun-Chi Lee		전기
회칙개정위원회	회칙개정위원장	석준원	Dr. Joon-Weon Seok	GORI Engineering	재료
	회칙개정위원	김미진	Mi Jin Kim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에너지공정
	회칙개정위원	윤정석	Dr. Jeoung Seok Yoon	Helmholtz Centre Potsdam Deutsches GeoForschungZentrum	환경/에너지
회관관리위원회	회관관리위원장	이보현	Dr. Bohyun Lee	Maiwald Patentanwalts GmbH	화학공학
차세대위원회	차세대위원장	공석			

2018년 주요 행사 일정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지역 및 전문분과 모임 및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12개 지역회 및 8개 전문분과회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원

회장단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Kiel 등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장단

2018년 1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8년 3월 2-4일 (금-일)

장소: Berli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자문위원회

일시: 2018년 4월 13-15일 (금-일)

장소: Augsburg

참가대상: 재독과협 자문위원 및 회장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5월 4-6일 (금-일)

장소: Darmstadt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EKC 2018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일시: 2018년 8월 20-24일 (월-금)

장소: Glasgow, UK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유럽의 과협회원, 한국 및 유럽의 과학기술자

2018년 2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8년 10월 5일 (금)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2018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10월 5-7일 (금-일)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한독공동학술대회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주관)

일시: 2018년 10월 17-19일 (수-금)

장소: Aachen

참가대상: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회원, 한국 및 독일의 과학기술자, 재독과협 회원

제2회 한-독환경워크숍

일시: 2018년 11월 13-14일 (화-수)

장소: Stuttgart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원, 한국, 독일 및 유럽의 환경전문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KNI e.V.

Holtenauer Str. 69.
24105 Kiel, Deutschland

Homepage : www.vekni.org

E-Mail : info@vekni.org

회원들의 제보 및 의견을 받습니다.

minjae.kim@vekni.org 편집간사 김민재



Email: info@vekni.org